

투데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절반 감축 갈등

농민 “영세농 더욱 고갈, 직불금 돌려달라” 전남도 “경쟁력 높이는 사업에 투자해야..”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영세농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주던 대로 직불금으로 달라

농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절반을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쓰기로 한 전남도 방침에 대해 농민들이 도시사실을 접 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지급되던 직불금이 반 쪽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벼 직불금을 지원했지만 농가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차라리 직불금 절반을 벼 공동건조장·육묘장 설립, 광역방제기 구입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여성농민회 회원 30여명은 21일 낮 12시30분께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도시사 집무실과 부속실을 점거하고 6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날 농민들은 오전 11시에 박준영 도시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무산 되자, 가로 막는 도청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도시사실에 진입했다. 농민간부 6명은 서로의 몸을 쇠 사슬로 묶은 채 ‘농업예산 삭감까지 마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도시사 집무실을 점거했다가,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중재로 농성을 풀었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농민단체에 의회가 나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만간

도시사와 끝장토론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농민회 회원들은 “영세농을 더욱 고갈시키는 처사이며, 특정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직불금으로 농가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벼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했던 지난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207억원을 마련해 180억원(88%)을 지급한 뒤 해마다 증액해왔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3ha 미만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12만5000여명의 지역 농민들이며 농가당 30만원 가량 소액 지급되고 있다.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중 50%만 직불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벼 공동육묘장 등 실질적인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게 전남도 방침이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은 지난 2일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고, 앞서 지난 2월에는 박준영 도시사의 시군 순방에 맞춰 시위를 열고 협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전남도의회 안준영(비례)·이정민(보성1)·정우태(장흥2) 의원 등이 전남도청에서 현재 10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의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전국에서 가



농민단체 회원 30여명이 21일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도시사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직불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 많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

는 특정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박람회 D-50... 김충석 여수시장 성공개최 확신

“시민 단합·열정으로 ‘여수시대’ 열자”

“3여 통합과 박람회 유치 때 보여준 여수시민들의 단합과 열정이 뒷받침된다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확신합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D-50(23일)을 이틀 앞둔 2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 개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박람회 준비로 밤낮없이 열심히 뛰었던 지난 20여개월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장으로서 보람이 더 컸던 날들이었다”며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반납하지’라는 말까지 나왔던 박람회를 정상개최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재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오는 4월 개통되는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도로나 숙박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과 인프라 사업도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며 “남은 기간에는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람회 성공 개최는 경찰·질서·친절·봉사의 ‘엑스포 4대 시민 운동’과 ‘자가용 안타기운동’ 등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현재까지는 이 캠페인에 시민 참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여수의 미래는 박람회가 열리는 93일간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시민들의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이뤄지면 세계 사람 누구나 한 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세계 4대 미항’ 여수를 만드는 것은 물론 ‘국제관광·레저스포츠 수도’로서 ‘여수시대’를 열어가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시장은 또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등 양극한 상술로 인해 대규모 국가 행사인 박람회를 망칠 수



김충석 여수시장

있다는 우려(광주일보 3월12일자 1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민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단호히 대처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여수 신항 일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다. 세계 106개 국가,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입장권은 홈페이지(www.expo2012.kr)에서 4월 말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한 장으로 박람회장 내 모든 전시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lm@

지방공기업 신입 모집에 변호사·박사·장교까지..

전남개발공사 경쟁률 38대 1

지방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로스쿨 졸업자, 세무사, 대학 겸임교수, 영관급 장교 등 전문직들이 대거 몰려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했다.

2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1명 모집에 변호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등 총 417명이 응시해 평균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채용분야별로는 경영이 1명 모집에 105명이 지원해 10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어 토목분야 41대1, 전산분야 36대1, 법정 22대1, 회계 15대1, 호텔경영 14대1을 기록했다.

특히 응시자 가운데는 로스쿨 첫 졸업자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비롯해 사법고시 1차 합격자, 세무사, 대학 겸임교수(박사), 영관급 장교(소령) 등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지원해 눈길을 모았다. 또한 10여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도 있었으며 최고령 지원자는 호텔경영분야(5급)에 응시한 53세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27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영기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팀장은 “지속되는 취업난에다 이번 정규직 공개채용부터 나 이·학력·지역 등을 완전히 없앤 ‘열린채용’으로 전환한 것이 우수인력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차지사 “민주 비례 농민대표 배제 유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1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와 관련 “5·18 관계자와 농민 대표가 배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이유이자 과제는 한국 사회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송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한미 FTA로 농업 분야 피해가 가장 큰데 후속 대책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농업인 대표가 국회에서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농업인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자에서 배제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발전연구원 미래성장동력 중심 조직 개편

전남발전연구원은 미래 전남의 발전방향과 과제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실 6팀으로 세분화된 조직을 미래성장동력 중심의 5실 체제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 명단 18명>

이번 개편으로 2007년 8월 재출범 이래로 기획, 산업·경제, 문화·관광, 농촌, 환경·해양, 인력·사회 등 1실 6팀 체제로 운영되던 것이 지역발전연구원, 녹색성장연구원, 경제사회연구원, 환경생태연구원, 기획경영실로 재편됐다.

전발연은 경쟁우위의 지역특화차원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수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철 전발연 원장은 “연구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질적 성장 위주의 연구에 주력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실천력 높은 정책과제 창출에 연구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전남 혼자사는 할머니 60%...전국 최고

전남지역 10가구 중 6가구는 1~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1~2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 혼자 사는 가구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특성변화’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2010년 1인 가구는 28.9%(19만

7000), 2인 가구는 31.4%(21만4000)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1995년 40.4%, 2005년 54.4%로 꾸준히 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37.7%)이었으며, 보성(36.5%), 곡성(36.3%), 고흥(35.5%) 등

의 순이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1인 가구는 보성이 7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곡성(71.5%), 담양(71.0%), 함평(70.9%), 고흥(70.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인 가구 가운데 63.9%인 12만6000가구가 여성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전남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무등저축은행 공매 공고

1. 공매물건의 표시

Table with 4 columns: NO, 매각물건, 용도, 면적(m²), 공매예정가액(최저).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2. 공매참가 자격

- 모든 사람(내외국인) 및 법인포함의 참가가 가능하며, 본인인원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3. 입찰 및 개찰

Table with 5 columns: 회차, 입찰기간, 개찰일시, 적용율, 개찰장소. Details the bidding and opening process.

4. 개발방법, 낙찰자 결정, 대금납부 방법

- 입찰방법: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한다. - 낙찰자 결정: 입찰표에 기재된 낙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대금납부: 낙찰금 전액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2)223-5506 ■ 담당자: 범석우 ■ 홈페이지: www.moodeungbank.com

Advertisement for SINKLEADER food processing equipment. Features a woman using a machine and text: '음식물 처리기 최강자', '2차감량기 유무', '1년 무상 A/S보장', 'KC국가인증제품 유무', '대한민국 제품확인'.

Advertisement for SM Solomon Finance. Text: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출금',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과다대출'.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ant benefits. Text: '공무원 대출', '공무원 특별자금', '대출대상',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과다대출'.